

<2012년 7월 2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신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자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새 시대 새 역사를 펴실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약시대 나사렛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계시록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미 이루고 끝나기도 했다.

2. 인간은 어떤 것을 만들 때 ‘말’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손과 몸을 움직여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다. /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만드실 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말씀을 선포하시면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존재물들이 1차, 2차로 만들어진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마자 즉시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

3. 사람도 기도하면, 말로만 했는데도 아픈 자 병든 자가 실제로 고쳐진다. 이와 같이 전능자가 말씀하시면, 그 말이 손과 발이 되어 그것들을 모아지게 하여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4. 한번은 생시에 천사가 옆에 있기에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천사의 손을 잡고 살을 만졌다. 그 살의 느낌이 그렇게도 부드럽게 느껴졌는데, 사람의 살을 만진 것과는 감히 비교가 안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너무 신기해서 천사의 여기저기를 만지며 확인했다. 그리고 천사에게 말했다. “천사는 영체이니, 사람들은 천사가 이같이 살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내가 확실히 아니 말해 준다.” 했다. / 천사는 내게 “이제 그만 확인하세요.” 하며 느낌으로 표현했다. 그래도 내가 더 확인하며 만지니까 천사는 ‘찌릿!’ 하는 느낌을 강하게 보냈다. 상대적으로 느낌이 오는데, 그 힘이 200볼트 전류처럼 강했다. 손이 찌릿하며, 감전된 듯 한 손을 타고 온몸까지 찌릿해서 더 이상 천사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손을 뗐다. / 천사는 얼마든지 그 영체의 몸을 통해서 강하게 능력을 보낸다. 느낌으로 전해 오는 그 몸의 능력이 천사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생시였다. 그 천사는 경호 천사였다. / 그 천사한테 물어보니 “좋은 때는 몸의 능력을 사랑의 느낌으로 쓰기도 하고, 싫을 때는 몸의 능력을 저

를 보호하는 무기로 씁니다. 이 능력을 무기로 삼고 사탄과도 싸우고, 제가 보호하는 생명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천사라면 모두 다 그러한 무기를 몸에 가지고 있기에 능히 사탄을 물리치고, 무장한 사탄의 군사들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했다. / 전능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창조하시려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씨가 되어 자연만물이 탄생되고 형체가 되어 차원별로 큰다는 것이다.

5.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신의 기가 나가서 병도 고치고 만물도 주관하게 된다.

6. 천사들은 각자의 사명대로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초능력의 생각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7. 천사는 그 능력과 힘으로 차를 뒤엎기도 하고, 바닷물을 흔들기도 하고, 태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야수를 막고 친다. 또한 그 능력으로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하게 하기도 하는 등 인간이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는 각종의 일들을 한다. 하나님이 주신 실권과 능력으로 사탄을 무찌르기도 하고, 직접 가지고 다니는 무기로도 사탄을 무찌르기도 한다.

8. 천사는 자기의 활동을 사람들이 못 보게 ‘능력’으로 자신을 가린다. 마귀도 자신을 숨기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천사의 능력이 훨씬 더 월등하다.

9. 천사들도 사역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위치에 가서 사역을 한다.

10. 창조주 하나님은 천사에게도 사람에게도 자기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 ‘능력’을 넣고 창조하셨다. 또한 만물들 중에서 생명체를 가진 물고기들과 동물들도 자기를 보호하는 기를 발사하도록 창조하셨다.

11. 물고기 중에도 전기를 일으키는 물고기들이 있다. 이 물고기들은 자기 몸에서 수백 볼트의 전기를 발사하여 상대를 죽이거나 마비시키며 외부 침입에

서 자신을 보호한다. (예 : 전기뱀장어, 전기메기, 전기가오리)

12. 천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쓴다. 고로 천사는 그 능력으로 사람을 돕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합당하게 응답받은 것만 행하여 돕는다.

13. 고로 전능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리도 크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14. 천사가 구원받은 하늘의 생명들을 보호할 때는 알아서 보호하기도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돕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더욱 천사의 보호를 받게 된다.

15. 기도 중에 지상 영계에서 한 장면을 보았다. / 예배 드릴 시간이 되어 선생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공적인 일을 하러 간다고 나가려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예배가 중하지, 일이 중하냐?” 했다. 그랬더니 그는 “지금 저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다 주님의 일이지요!!” 하고 큰소리치며 내게 대들었다. 그는 나를 잘 모르는 자였다. 교회를 다니며 주님의 일은 하고 있었지만, 선생을 잘 모르는 자였다. / 결국 서로 손으로 밀치며 겨루었다. 그는 몸이 크고 손도 컸다. 나는 몸도 작고 손도 작았다. 그가 내 팔을 잡아 꺾더니 “작아도 힘이 엄청 강하네!” 했다. / 불의를 보고 그냥 놔두면, 내가 할 일을 못 하기에 사방을 쳐다보며 나를 도울 자가 있는지 보았다. 그런데 호지부지하게 장면이 사라졌다.

16. 다시 기도를 깊이 하면서 ‘아까 지상 영계에서 보았던 그들을 그냥 두면 제 마음대로 크겠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 기도가 끝날 무렵에 다시 아까 그 장면이 다시 보였다. 그들은 다시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서 내게 왔다. 말씀 시간이 늦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었다. / 기도하며 깨닫고 보니, 내가 먼저 그들을 대하는 대로 그들도 나를 대했다.

17. 영계에서도 내가 먼저 상대를 ‘선’으로 잘 대해 줘야 상대도 나를 ‘선’으로 대해 주었다.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마찬가지다. / 그들이 잘못했기에 잘못했다고 지적하니, 그들은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이 맞다며 주장했다. 내가 기도하니 상황이 좀 좋아진 것을 주님이 보여 주셨다. 기도하여야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상황이 좋아진다.

18.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오직 ‘선’으로 싸우고 이겨야 불의로 가는 자가 선의 세계로 가게 되고, 자기중심대로 불의로 싸우면 불의로 가는 자는 결국 불의의 세계로 가게 된다.

19. 불의한 곳으로 가는 영혼을 보고, 자기를 희생하여 참아 주고 ‘선’으로 대하여 가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가게 해 주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 주시고, 그 공적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시리라.